

# 경북 청도·김천 지방소멸대응 우수... 기금 총 1494억 확보

## 청도군, 활력타운·행복버스 강화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등 좋은평가 김천시, 농촌 인력난 대응 성과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494억원을 확보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분배된다.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계정 7500억원과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계정 2500억원으로

돼 있다.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 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광역계정은 인구감소 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책 할당된다.

올해는 지자체의 기금운용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등급 체계를 S, A, B, C 등급 4단계에서 우수, 양호 2단계로 완화시켰다.

우수와 양호의 등급 간 배분액 차이는 88억원으로 확대됐다.

경북도는 이에 대응해 경북연구원

과 공동으로 국내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군별 맞춤형 투자계획 사업 발굴과 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았다. 또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내년 시·군 기초기금 투자계획 마련을 지원했다.

경북도는 전국 10개 우수 지자체(감소 지역 8곳, 관심 지역 2곳) 중 청도군과 김천시 2개 시·군이 선정돼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1226억원을 지원받는다.

경북도도 광역계정으로 268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청도군은 청도읍·화양읍 중심부에 조성되는 지역 활력 타운과 대중교통(행복 버스) 순환노선을 중심으로 주

거, 문화, 일자리 3개 요소 기능을 강화하고 청도-경산 대중교통 버스 연계,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등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과 연계해 청년층 수요를 충족하고 활력있는 콤팩트시티를 완성하는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천시는 안정적인 외부 인력 유입 기반 조성으로 김천 농촌지역의 인력난과 농업 생산성 저하에 대응하고 농업 근로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거점형 생활공간 조성으로 근로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해 농가 일손 부족 해소로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가 활력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지원을 받아낼 수 있었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대구시는 2024년 ABB 분야 유망벤처 기업 6개와 고성장기업 4개를 선정하고, 11월 5일 대구스포츠타운 입주지원센터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 대구시 ABB산업 선도기업 10곳 선정

대구시는 지난해 지역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할 유망 기업 13개를 발굴·지원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올해도 1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13개 기업은 매출이 전년 대비 970억 원에서 1,088억 원으로 12.2% 증가하고, 고용 인원도 921명에서 952명으로 3.4%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다.

선정된 기업들은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R&D 지원과 최대 6천만 원의 비R&D 지원을 포함해, 사업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대구 ABB 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김준환 기자 kih9@

## 울산시 세계미래박람회서 투자유치

울산시는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 2024(WAVE 2024)'와 연계해 '투자유치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홍보관은 이날부터 8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운영된다.

이번 홍보관에서는 울산의 투자환경과 주력산업, 에너지산업, 미래 신산업 등을 소개한다. 특히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산업수도'로 자리 잡은 울산의 산업 발전 역사를 전시해 미래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린다. 또한 국내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상담이 진행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나주시 여성친화기업에 혜택 지원

전남 나주시가 성평등에 기반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준 기업에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관내 기업인 '㈜쿠로엔시스', '㈜정석푸드나주'를 여성친화기업으로 새롭게 인증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성친화기업은 최고경영층 리더십, 고용평등, 직원 근속 현황, 일-생활 균형지원 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운영 및 교육 여부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선정한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경남도, 신재생에너지 공모서 355억 받아

17개 시군서 20개 컨소시엄 선정

경상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 사업'에서 17개 시군의 20개 컨소시엄이 선정돼 총 35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2013년부터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 중 국비는 109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대비 39.7%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이 참여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2종 이상을 주택, 공공, 상가 등 건물에 설치·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17개 시군에 355억원을 투입해 주택, 상가, 공장, 공공청사 등 3911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에너지 복지가 향상되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7월에는 공개평가를 진행한 후, 10월 25일까지 심층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 규모가 확정됐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의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 시군을 방문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기획 작성 방향을 권고하는 등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제철 돌아온 '영덕대게' 올해 첫 위판

영덕군, 마리당 최고가 15만4000원

영덕군은 4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산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11회에 걸쳐 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은 최고의 특산물 영덕대게가 제철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특유의 담백한 맛과 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특산물 중 하나인 영덕대게가 5개월 간의 금어기를 보내고 지난 3일 강구항에서 올해 처음으로 위판됐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많아 쫄깃한 맛이 특징이며, 필수 아미노산은 풍부해 지방함량은 적어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대게 조업은 11월 근해에서 시작돼 12월 연안으로 확



'천년의 맛' 영덕대게, 금어기 해제 후 2024년 첫 위판 모습.

장돼 본격적으로 이뤄져 다음 해 5월까지 이어진다. 살이 꽉 찬 대게는 '박달대게'라 부르는데 박달대게만이 집게다리에 '영덕대게 브랜드 타이'를 두르게 된다. 경매에는 근해대게자망 어선 3척이 참가했으며, 낙찰가는 마리당 기준 최고가 15만 4,000원, 총판매액은 1억 9,885만 원을 기록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부산 커피 물류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부산광역시

## '아시아 커피 물류' 허브 부산 만든다

BICC컨소시엄 등과 업무협약

부산시는 지난 5일 BICC 컨소시엄, 중미2국 커피원과 함께 '부산 커피 물류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부산항이 아시아권 커피 물류 수출의 교두보로서, 부산이 아시아커피산업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 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시와 BICC 컨소시엄, 중미2국커피원이다. 중미2국 커피원은 코스타리카 'ICAFFE', 온두라스 'IHCAFE'이다. BICC(Busan International Coffee Consortium) 컨소시엄은 부산 커피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성된 협력체로, 7개의 지역 기업으로 구성됐다. 강림CSP, 넥센, 부산일보, KNN, 퓨트론, 화승네트웍스, 구아코코리아로 구성된다.

중미2국 커피원은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의 커피 전문기관으로, 부산항을 아시아권 수출커피 물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스타리카, 온두라스는 고품질의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로서, 커피 생산량은 세계 14위, 7위로 자국 커피 수출과 커피 산업의 감동권을 활용해 부산에 안정적인 커피 공급을 지원하고 품종별 로스팅 기술을 지원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광양시,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 주관

광양시에서 '수소로 여는 미래, 에너지 수도 전남'이라는 주제로 제1회 전남 청정수소 국제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전라남도와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양시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수소정책과 전망 그리고 광양만권

수소 운송 인프라 구축과 각종 수소 기술 개발 방안을 모색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념사에서 "광양만권 화학·철강 중심 국가산단을 그린산단으로 탈바꿈하고 동·서부권에 조성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과 연계해 청정수소 생산·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트럼프 당선 유력, '트럼프 미디어' 주가 하루 2번이나 거래 중단 급등락 /사진 뉴시스
- ▲공화 후보 웨스트버지니아주 당선, 상원 다수당에 한 발 가까이

- ▲'한국 사위' 래리 호건 메릴랜드 상원 의원 낙선
- ▲정부, IMF 연례협의 실시...경제·정책 전반 논의



- ▲日, 美차기 정권과도 "협력 관계 구축...미일 동맹, 외교 기축" /사진 뉴시스
- ▲구글맵 업데이트에 우크라이나 발각...'비밀 군사 기지' 노출돼